

포트홀 차량 파손 보상받기 ‘분통만 터진다’

매년 사고 급증...절차 복잡하고 오래 걸려 운전자 포기 일쑤 구청 ‘예산없다’며 국가배상 권유도...피해 처리 일원화 필요

이성미(여·45·광주시 봉선동)씨는 지난 달 8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공항~상무지구 방향 편도 2차로를 지나던 중 운전하던 ‘제네시스 G80’이 ‘쿵’ 소리와 함께 오른쪽으로 쏠리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씨는 이미 날이 어두워진데다 비까지 내린 탓에 움푹 패인 도로(pothole·도로 표면이 움푹 패인 곳)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조수석 타이어 옆면이 3cm 가량 찢어졌다.

이씨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광주시에 전화했더니, 사고가 난 구역이 서구 관할이기 때문에 서구청에 연락하라고 하더라”면서 “다시 서구청에 연락했더니, 이번에는 배상에 줄 예산이 없다며 검찰청 민원실에서 국가배상 피해를 접수하라고 해 어이가 없었다”고 황당해 했다.

이씨는 “피해 보상 절차가 너무 복잡해 결국 포기하고 사비를 들여 타이어를 교체

했다”며 억울해 했다.

“도로 위 폭탄”으로 불리는 포트홀 때문에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매년 수만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배상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최장 6개월 이상 소요돼 운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로마다 관리 주체가 다른 점도 보상 절차를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 ‘사고 피해 처리 일원화’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9월1일까지 광주시가 관리하는 4차로 이상 도로와 5개 자치구 관할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2013년 1만 5484건, 2014년 1만618건, 2015년 1만4066건, 2016년 1만7648건, 2017년 8083건, 2018년 1~3월 6354건 등으로 나타났다. 포트홀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도로(총연장 561km)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 중 접수 처리된 건수는 총 330건으로, 보험금 2억7000여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배상절차가 복잡한 탓에 사실상 피해 배상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운전자도 상당하다.

포트홀 사고 접수방법은 검찰청에 접수하는 국가배상 신청과 자치단체 배상신청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국가배상 신청의 경우 광주고등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국가배상 신청서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수리비용 영수증 등을 각종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따져 배상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데, 배상확정 비율이 높지 않은데다 처리 기간도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돼 피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국가배상 외에도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처리 절차가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우선 폭 20m(4차선)를 넘는 도로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20m 미만의 도로는 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탓에 배상신청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피해신고 접수시 현장으로 출동해 포트홀 깊이 등을 파악한 뒤 자체적으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처리기간이 합의 등의 과정을 거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다, 피해 배상금이 높지 않아 제2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게 자치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선 구청의 경우엔 배상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권유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상현주 광주시 서구 시설물관리담당은 “서구의 경우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 배상예산이 적어 포트홀 관련 민원은 검찰청에서 하는 국가배상신청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다른 자치구도 비슷한 처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 세들어 사는 모텔 ‘화끈 방화’

신속 진화로 인명피해 없어 광주북부경찰, 30대 검거

어머니와 다툼 뒤 어머니가 세들어 사는 모텔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9일 광주북부경찰은 모텔과 신속 중인 원룸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모(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한 모텔 2층과 4층에 설치된 세탁기 옆에 있던 옷가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세탁기를 태우는 등 13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할머니와 생활하는 이씨는 어머니(68)가 홀로 세들어 사는 모텔을 찾아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웃을 버렸냐’고 다그치자 화가 나 모텔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방화한 뒤 모텔 인근 공중전화로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당시 모텔에는 15명이 숙박하고 있었지만 불은 119에 의해 신속하게 진화되며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세탁기 주변에서 잇따라 불이 났고, 화재 신고가 공중전화로 접수된 점을 미뤄 방화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며 공중전화에서 이씨의 지문을 채취해 지난 8일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3일 새벽 1시께 북구의 한 공사 중인 원룸에 들어가 건축자재 등에 불을 질러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사실도 인정했다.

경찰은 방화·실화 전과 3범인 이씨가 방화 혐의로 3년 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출소해 누범기간인 점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적물 소지 처벌 국보법 조항 합헌 유지

현재 위헌 정족수 1명 모자라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해당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족수(6명)에 달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됐다.

현재는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관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의 확정된 A씨가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자에게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순애·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적표현물의 유통이나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유포·전파 행위 자체

를 처벌하면 가능하므로 그 단계에 이르러 지 않은 소지행위를 미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를 내놨다.

하지만 현재의 정식 의견으로 채택된 것은 김창중·안창호·서기석·조용호 등 재판관 4명의 합헌 의견이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수가 6명 이상이 되지 않는 한 현재의 정식 의견이 되지 못한다.

김 재판관 등 4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가 지니는 위헌성이 이를 반포하는 행위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한 자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국보법 처벌 조항에 대해 현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자에게 자격정지까지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광주천 긴급 방역 9일 광주시 북구보건소 긴급방역원들이 모기퇴치와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임동 광주천 산책로 주변에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최한혜기자 choi@kwangju.co.kr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오늘 두번째 대법원 선고

여교사를 성폭행한 섬마을 학부모들의 두 번째 대법원 선고가 10일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 결과를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밤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1, 2차에 걸쳐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처 탄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범행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에선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점 등으로 미뤄 합동 또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불법 당원 모집 혐의 구청장 예비후보 구속기소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13지방선거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9월 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나물 선물, 3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 흥기 찌르고 도주 중국인 형제 6일만에 검거

광주 주택가에서 일용직 노동을 함께한 동료들을 찌르고 달아난 중국인 형제가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은 9일 동료를 흥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중국인 장모(48)씨와 진형(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제는 지난 3일 오후 9시 27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중국인 A(30)씨와 중국동포 B(30)씨를 폭행하고 흥기로 배와 등을 각각 4차례 2차례씩 찌른 혐의다. 이들은 A씨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생 장씨가 불만을 품고 통화하다가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한혜기자 young@

주택용 화재경보기 울린 덕택에...할머니 무사 구조

○...80대 할머니가 요리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가 주택용 화재경보기 덕분에 조기 진압돼 안도의 한숨.

○...9일 광주동부소방에 따르면 A(81)할머니는 지난 7일 낮 12시 5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자신의 집 부엌에서 식용유를 두른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

에 올려둔 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름에 불이 붙는 바람에 집안 일부를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4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는 것.

○...소방관계자는 “화재와 동시에 경보기가 자동으로 울린 덕분에 신속히 신고돼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 시세가 1억 2천 ◆
매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신축 원룸매매

◎ 산정공원 바로 앞 (코너) 주인집 거주

1층 상가 (2개)
2층~3층 (원룸 12개)
4층 (최고급 주택)

월수익 550만

◆ 매가 : 9억 5천만 ◆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A.P.T	주택	토지·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구 매월동 (정례식당) 토 3,302평 건 3,955평 ▶감평가 2백70억 → 최저가 2백70억 2) 화순 도곡면 (무인빌)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2개(월수익 5,000만 예상) ▶감평가 39억 → 최저가 13억8천 3) 광산구 신창동 (월룸빌딩) 토 55평, 건 120평 광주보건대 2분 ▶감평가 3억8천 → 최저가 2억6천7백 4) 담양군 삼대리 (무인빌) 토 3319평 건 750평 객실322개(월수익4,500만 예상) ▶감평가 39억 → 최저가 13억5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북구 중흥동 주택 토지 33평 건물17평 감평가 9천만 → 최저가 6천9백 7) 담양군 무정면 주택 토지 60평 건물 30평 감평가 8천만 → 최저가 4천9백 8) 나주시 금천면 주택 토 14평 건물 45평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7천만 9) 나주군신면 (주택) 토 4242평 건물 20평 감평가 6천만 → 최저가 4천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서구 금호동 (7층 중 7층상가) 100평상가(대단지아파트 위주)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5) 삼부지구 세정마을 (29평) 감평가 3억 → 최저가 3억 6) 효천지구 (1층상가) 감평가 1억4천4백 → 최저가 8억 7) 북구 용봉동 (12층 중 7층상가) 감평가 6억7천 → 최저가 4억7천 8) 삼부지구 (12층 중 8층상가) 감평가 8억7천 → 최저가 8억7천 9) 광산구 월계동 (호반아파트상가)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10) 동구 충진로 (3층상가빌딩) 감평가 4억6천 → 최저가 4억6천 11) 군산시 오식도동 (4층상가) 토 130평 건 305평 군산 신업단지 내위치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교육 (4월초 개강)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②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③ 무료반운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